

# 국가예산 1조원대 10년 연속 달성

### 군산시, 내년도 정부예산안 1조2041억 확보... 계속사업 232건·신규사업 17건 예산 반영 강임준 시장 “정부 긴축재정 기조 속 이뤄 낸 결과·2025년 추경예산 확보도 최선을 다할 것”

군산시가 2025년도 국가예산 1조 2,041억원을 확보하며 10년 연속 국가 예산 1조원대 확보를 달성했다.

11일 군산시는 정부 예산안이 지난 10일 최종 확정된 가운데, 2025년도 국가예산 1조 2,04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성과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현정 사상 최초로 국회의 정부 예산 감액 의결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낸 결과다 더욱 주목된다.

예산 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매우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예산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쟁점사항에 대하여 부처대응을 공동으로 추진 등 꾸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군산시가 확보한 국가예산은 신규사업 17건에 391억원, 계속사업 232건 1조 1,650억원, 총 249건 1조 2,041억원으로 작년 대비 15% 증가한 12,041억원 규모의 25년도 정부예산을 반영했다.

또한 시는 시민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생활체육·복지 등 시민체감의 신규사업 예산 확보에도 성공했다.

먼저 현 여객선의 퇴역을 대비하고 섬주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연도항로 대체여객선 건조사업 12억원(총사업비 80억원), 신항·나운지역 등 시내권 상습침수지역 및 사면재해위험 구간에 대한 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항지구 풍수해생물권 종합정비 10억원(총사업비 477억원), △경포천지구 자

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0억원(총사업비 459억원), △나운지구 우수 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 20억원(총사업비 499억원) 확보에 성공했다.

이어,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및 다목적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국립대 지역연계 복합센터 건립사업 5억원(총사업비 297억원)과 함께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교육을 혁신하는 △교육발견특구 시범지역 지정사업 30억원(총사업비 180억원) 까지 확보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적극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8억원(총사업비 17억원)을 확보하였고, 말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총사업비 40억원)에 적극 대응하는 등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하였다.

지난해 짬버리 파행으로 새만금 SOC 예산이 대거 삭감되었지만, 올해는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정상 추진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 △군산새만금 신항만(1,382억원), △새만금 국제공항(632억원), △새만금항 인입철도(54억원),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사업(1,026억원), △새만금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사업(255억원) 등이 예산에 반영되어 속도감 있는 트라이포트 구축 등 새만금 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다.

군산시는 지난 2016년 최초로 1조원대 국가예산을 확보한 이후 10년 연속 1조원대를 기록하였으나, 비상 계엄,

탄핵 등 특수상황이 발생하여 국회단 계에서 증액사업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개야도 국가어항 등 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필요한 국책사업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외에도 친환경 해양모빌리티 관련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 인프라 사업들이 일부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졌다.

군산시에서는 이러한 아쉬운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내년도 국가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미반영 사업들이 부처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속 국가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군산시 주요사업들의 국비지원 필요성·적정성·시급성에 대한 논리개발과 대응방안을 찾아 2025년 정부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라고 소회를 밝히며 “내년도에 국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연초부터 치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신영대 국회의원의 또한 “군산시 지역 국회의원이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군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5년 군산시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에 군산시와 협력해 추경을 통한 추가예산 확보,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의회, 윤석열 탄핵소추안 김건희 특검법 의결 촉구 결의안 채택

### 김경식 의원 대표 발의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은 11일 제 269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및 김건희 특검법 의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식 의원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7분경 대통령 윤석열은 ‘반국가세력,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며 제22대 국회와 그 의원들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제1공수특전여단 등 무장병력을 투입해 국회의사당을 공격했다며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를 침탈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출입과 의사 진행을 방해하며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을 사유화하였다며 12월 4일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이후 대통령 윤석열은 2분짜리의 내용도 없는 사과인 사과로 국민을 우롱하였고,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에 전달 불참으로 폐기되었는데, 그에 앞서 진행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6명을 제외한 102명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되었다고 했다.

이외 그동안 김건희의 수장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을 극히 심각한 2가지 의혹으로 대폭 축소하였고, 특별검사 추천 역시 한동훈 대표의 공약이었던 제3차 추천방식으로 수용하였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체계 위반,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는 이유로 연일 거부권을 행사하였

고 국민의힘 또한 그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라는 보수의 가치와 양심을 저버린 채 추가조작 범죄자, 국정농단 범죄자를 옹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도 모자라 대통령 탄핵소추안 또한 부결시켰다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출입을 막고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를 침탈하고, 군대를 동원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이뤄진 명백한 내란으로 국회 앞에,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 탄핵, 윤건희(윤석열-김건희) 퇴진을 외치는 100만 시민들의 외침을 철저히 외면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헌법과 국민 앞에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경식 의원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군산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윤석열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으니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를 즉시 의결할 것, △국민의 공포를 조장하고 민주주의를 무력화한 중대한 범죄에 가담한 관련자들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실시할 것, △현 정권의 실세인 김건희를 엄정히 조사할 수 있는 주체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검밖에 없기에 국회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 “가짜 어업인 수산직불금 부정수급 등 막아야”

### 군산시의회 2차 정례회 5분 발언... 노인 일자리 사업 제언도

▲한경봉 의원, “가짜 어업인의 수산직불금 부정수급 등의 부작용 미리 방지해야”



한경봉 의원



우중삼 의원



서동수 의원

먼저, 한경봉 의원은 ‘어쩌다 이런일이 26, 군산시의 가짜 어업인’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한경봉 의원은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 중 갯벌이나 갯바위에서 맨손 또는 호미 등 간단한 어구를 이용하여 바지락 등 조개류 및 해조류를 포획·채취하는 맨손어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맨손어업의 세부적인 직불금 지원 대상은 어촌에 거주하며 어업경영체 등록 후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하고, 전년도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가로 군산시 맨손어업 면허제 부과 현황은 2010년부터 15년간 평균 5,314건으로 2009년 1,577건에서 2010년 3,325건으로 2배 증가하였고, 2013년 6,797건으로 2배 급증하였는데 문제는 맨손어업 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에 조건이나 대상이 안되는 신청자가 있다는 것이라 했다.

이어 군산시에 맨손어업인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라든 그것은 바로 어업인이 되어야 수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인데 어업인도 아닌 사람들이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수협 조합장 선거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과연 이들은 진짜 맨손어업인이나, 아니면 선거를 위한 가짜 어업인이나라며 군산시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가짜 어업인을 발견해 없애야 하고 가짜 어업인의 수산직불금 부정수급 등의 부작용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우중삼 의원, 군산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제언

우중삼 의원은 군산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우 의원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을 심사 할 때 위원 명단과 회의 개요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면 어떨까, 특히 사업량 배정 같은 주요 논의사항들은 투명하게 공개되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우중삼 의원은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의 처우 개선 등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은

위한 예산은 보이지 않아 안전한 노인 일자리를 위한 정부의 고민이 너무나 부족해 보인다며 ‘노인 일자리법’에는 안전관리 의무가 있지만 관련 예산은 없기 때문이라면서 군산시에서 발생한 노인 일자리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니 2023년에는 34건이었는데 2024년에는 54건으로 대폭 증가, 군산시는 증가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기를 바란다면 안전이 확보가 되어야 좋은 일자리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동수 의원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 피해, 군산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서동수 의원은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 피해와 관련, 군산시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정부에 방과제와 방벽 등 각종 설계 기준의 상향,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적기에 신속하고 과감한 재원이 투자돼 정비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것과 군산시 자체적으로는 적극적인 이주화를 통해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 피해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지역문제 중 하나로 여론을 환기시킬 것을 강조하며, 대조기는 물론, 백중사리 때, 또는 태풍이 올 때마다 침수 피해를 입을까 마음을 졸이는 도서 지역 주민들에게 더 이상 주의하기만을 요청할 수는 없으면서 군산시는 정부와 함께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해안도로와 방과제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 제17기 익산농업인대학 수료식 개최

익산시가 농업·농촌발전을 이끌어 갈 농업 전문 인력 101명을 배출했다. 익산시는 전문 지식과 역량을 갖춘 농업인재 양성을 위해 운영한 ‘제17기 익산농업인대학 수료식’을 11일 개최했다.

제17기 익산농업인대학은 △청년농업인CEO 40명 △온라인마케팅 20명 △농산물가공 30명 △신규농업반 40명 등 4개 과정에 130명을 선발해 지난 3

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간 운영했다. 이론교육부터 우수농가 사례 탐방, 실습 등 각 과정마다 20강 총 80시간 이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101명이 수료했다.

이날 수료식은 강영석 익산부시장과 소길영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수료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시상 보고, 표창장·수료증 수여가 진행됐

다. 수상자는 청년농업인CEO 과정의 유현수 교육생과 온라인마케팅 과정의 전승업 교육생이 농촌진흥청장상을 받았다. 유현수 교육생은 자치활동에 기여했으며, 전승업 교육생은 우수한 실적으로 과정을 이수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농산물가공반 양은수씨, 신규농업반 윤성봉씨 등 16명이 학사운영에 적극 참여한 공을 인정받아 익산시장 표창을 받았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다문화 정책 발전 성과 ‘빛났다’

###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익산글로벌문화관 조성 등 호평

성숙한 다문화사회를 선도하는 익산시의 노력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시는 ‘제2회 이데일리 다문화 미래대상’에서 대상인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다문화 미래대상’은 이데일리가 주최하고 여성가족부가 후원하며, 다문화 시대를 맞아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다문화 정책 발전에 기여한 우수 지방자치단체·기업·개인 등을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익산시는 다문화 전시·체험시설인 ‘익산글로벌문화관’을 조성해 다문화 감수성 향상과 폭넓은 문화 교류에 힘

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익산역에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운영해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체류 관리, 고용 상담, 통역, 상담 등의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결혼이민자들의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재한국 베트남인 축구대회인 VFAK 동향컵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 화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농촌 크리에이티브 지원사업’ 선정

### 올해 12개 여행상품 개발·관광객 9300여명 유치 성과

익산시는 농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농촌 크리에이티브 지원사업’에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농촌 크리에이티브 지원사업’은 농촌에 특화된 테마관광 상품 개발·운영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농촌문화 체험에서 벗어나 방문객이 참여, 배움, 재미, 휴식, 힐링 등을 느낄 수 있는 체험형 관광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12개의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관광객 9,300여명을 유치했으며, 청년 농촌산업관광 크리에이티브 양성사업도 운영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성과를 기반으로 내년까지 대비 포함 총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촌 관광과 청년 농촌활동가 운영을 더욱 고도화한다. 실제 농촌 관광 콘텐츠로 비석박물관 연계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웨딩드레스 대여, 보석 속 음악회, 고백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해 방문객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천민승이 국화축제와 김장축제를 비롯한 지역 행사와 연계한 농촌 관광 상품으로 ‘촌스런 가치여행’, ‘반려견과 함께하는 시골 여행’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농촌 관광 상품에 대한 정보는 다이로움 시골여행 누리집(ist.kr)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시는 크리에이티브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 청년 인구 유입에도 힘쓰는 방침이다. 올해 추진한 관광 크리에이티브 양성을 통해 지역 청년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농촌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청년 농촌활동가 교류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활동 기반을 구축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의회 통과

11일 열린 군산시의회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군산시는 그동안 조직의 기능별 전문성 제고와 효율성 강화, 수요자 중심의 행정 추진 등을 위해 면밀한 조직진단과 내부 의견수렴을 통해 개편안을 마련하였으며, 입법예고와 의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시의 조직개편안을 보면 개편 전 10국·소 50관·과·소 33건 단위원 27읍·면·동 309계원 10국·소 10국·소 53관·과·소, 33전문위원 27개 읍·면·동 307계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수도사업소와 시설관리사업소가 폐지되는 반면 교통행만수산국과 기후환경국을 신설하는 것이 이번 조직개편안의 핵심이다.

기후환경국은 기후환경·자원순환·산림복지·수도·하수과 등 5개과로 편제됐으며, 교통행만수산국은 교통행정·스마트도시·항만해양·어업정책(현 어업진흥)·수산산업과(현 수산식품정책과) 등 5개과로 갖춰졌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스마트도시과는 스마트도시계, 지능형교통계, 영상정보계, 교통시설계 등 4개 계로 꾸러진다.

공보담당관은 그동안 시장 직속체제에서 벗어나 기획행정국에 속하도록 했으며 기존 공보와 미디어홍보계 등 2개계에서 교류협력계와 고희사랑기부계가 추가돼 총 4개 계가 된다.

이와 함께 관광진흥과에 축제의 세밀함을 더하기 위해 미식관광계를 신설한 것도 특징이다.

여기에 자치행정국과 경제행민국·복지환경국이 기획행정국과 경제산업국·복지교육국으로 변경된다.

군산시의 조직개편안은 12월 중에 조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내년 1월 정기인사 시부터 반영할 방침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 익산 다이로움 취업박람회 청년시청서 17일 오후 2시

익산시가 취업·진로 준비에 지친 직업계고 학생과 청년을 응원하는 재충전의 시간을 마련했다.

익산시는 17일 오후 2시 청년시청서 다이로움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한석준 아나운서 초청 특강과 금융강의, 현장면접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한석준 아나운서는 오후 3시부터 ‘성공과 행복, 두 가지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강의에 나선다. 한 아나운서는 KBS 29기 공채 아나운서 출신으로 유튜브 채널과 강연 등을 통해 대중에게 말하기 노하우를 전하고 있다. 특강에 앞서 오후 2시부터 사회초년생을 위한 금융교육과 1:1 현장면접이 진행된다. 취업박람회는 익산시 청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면접 희망 시 오는 16일까지 청년일자리센터(063-918-6088~9)로 전화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